

고규홍의 '나무 생각'



제사상에 밤을 올리는 이유

독특한 향기로 피운다. 여느 나무와는 다른 동물성의 비릿한 내음이다. 꽃향기로는 매우 독특하다. 밤꽃 향기에는 동물의 정액에 포함된 스퍼미딘(spermidine)과 스퍼민(spermine) 분자가 들어 있다. 식물의 생식 기관인 꽃에 동물의 생식 기관과 같은 분자가 포함됐다는 이야기다.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늦은 봄에 피어나는 밤송이 그 때까지만 곤충에게 익숙했던 향기가 아닌 다른 향기로 곤충을 불러들이려는 번식 전략으로 짐작할 수 있다.

꽃이 지면 꽃 지리기에 송알송알 밤송이가 맺힌다. 밤송이에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특별한 가시가 돌아난다. 손으로 잡기는커녕, 저절로 떨어지는 밤송이에 맞으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우려까지 있다.

대개의 씨앗들은 다른 동물을 이용해 어미 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 바람을 이용해 멀리 날아가는 씨앗이 있는가 하면, 동물의 몸에 붙어 이동하는 씨앗도 있다. 또 짐승에게 좋은 먹이가 되기 위해 과육을 발달시켜 씨앗을 둘러싼 과육은 동물에게 내주고, 단단한 껍질로

싸인 씨앗은 짐승의 배설물에 섞여 자리 잡기도 한다.

밤송이는 그런데 바람을 이용해 날아갈 수도, 짐승의 몸에 붙어 이동할 수도 없다. 대관절 어쩌려고 저같은 가시를 달아야 했을까. 역시 살아남으려는 전략이다. 독특하다. 사람을 비롯해 짐승들이 맛나게 먹는 밤의 살이 곧 밤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밤나무는 밤톨 하나하나를 속껍질과 겉껍질이라는 이중의 차단막으로 감싸서 보호하려 했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히 보호하기 어려웠다. 결국 껍질을 잘 벗겨 낸 사람과 짐승에 의해 밤나무의 씨앗은 분해되고 소화되기 십상이다. 봄부터 애써 지은 한 톨의 생명을 짐승의 배속에서 사라지게 된다.

밤나무는 새로운 껍질 한 겹을 더 지어야 했다. 씨앗인 밤톨을 두세 알씩 모은 뒤에 그 겹에 또 하나의 커다란 보호 장치를 만든 것이다. 바로 밤송이의 날카롭고 역센 가시다. 오랜 세월을 거쳐 밤나무가 지어 낸 최적의 생존 장치다. 속껍질, 겉껍질, 밤송이 가시 등 이중 삼중의 보호 장치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틀 때까지 하나의 생명을 온전하게 보

호한다. 자식을 제대로 키우기 위한 안간힘의 증거다.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 뒤에 이 같은 보호 장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대개의 경우, 씨앗을 보호하던 견고한 껍질은 순식간에 시들고 썩거나 바람에 날려 가뭇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밤 껍질은 다르다. 싹이 트 뒤에도 밤 껍질은 뿌리 곁에 남아 있다. 잠깐도 아니고, 나무가 잘 자라 새로 씨앗을 맺을 때까지 몇 년이 지나도 곁에 남는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자신을 잘 지켜주기 위해 독특한 빛깔과 향기, 그리고 단단한 껍질과 역센 가시를 짓느라 혼신을 다한 어미의 고마운 마음을 오래 기억하는 것으로 여겼다. 조상의 음식을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시작됐다. 말 없는 나무의 한해살이에서 자식을 낳아 키우기 위해 애원글썩 살아온 우리 부모들의 정성을 기억한 조상들의 자연주의적 지혜다.

〈나무 칼럼니스트〉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료칼럼



김지영 상무힐링재활요양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명절 뒤 필요한 '수고했어요' 한마디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는 뜻으로 추석, 중추절, 가배절이라고도 한다.

소설가 박경리는 대하소설 '토지(土地)'에 '추석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말이나 새들에게, 시궁창을 드나드는 쥐새끼들에게도 포식의 날인가 보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추석은 대부분의 곡식과 과일이 익지 않는 상태라서 서양처럼 추수 감사절이 아니라 오히려 풍년 기원절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1947년에 처음으로 추석날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했고, 1986년에 추석날 다음 날까지 공휴일로 지정했다. 1989년에 추석 전날까지 공휴일로 지정했고, 2013년부터 3일간의 연휴 중 하루라도 일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연휴 다음날인 음력 8월 17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했다. 1993년은 대전엑스포로, 1996년은 간첩 사건으로, 2003년은 태풍 매미로, 2010년은 집중 폭우로 최악의 추석을 맞기도 하였다.

추석에는 예부터 고향을 방문하는 풍습으로 민중 대이동을 하였으나 최근에

는 부모들이 역 귀향을 하거나 가족끼리 해외로 관광을 하는 경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즐거워야 할 추석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병고 아픈 사람과 가난하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은 물론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은 며느리들은 추석은 명절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라고 한다.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에 대다수 기혼 여성들은 장시간 이동부터 새벽까지 밤늦도록 집안 청소, 시장 보기, 음식 준비, 설거지까지 육체적 스트레스를 겪는다. 특히 며느리들은 불안, 초조, 우울, 불면, 요통, 편두통, 소화 불량, 위장 장애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도 꽤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명절을 계기로 평소고 밀어져 있던 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갈등이 표출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게 된다. 최근에는 남편, 미취업자, 미혼자, 시어머니 등도 정신적 또는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명절 증후군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어제로 명절 연휴가 끝났다. 명절 스

트레스는 주지도 받지도 않아야 한다. 추석이 지났지만 계절이 바뀌면 다시 설날이 찾아 올 것이다. 후식 짧은이에게 취직과 결혼을 걱정하고, 중년에게 가정과 노후를 위로하는 질문을 하였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추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바로 오늘 안에 취해야 할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가족들에게 밤늦도록 집안 청소, 시장 보기, 음식 준비, 설거지까지 육체적 스트레스를 겪는다. 특히 며느리들은 불안, 초조, 우울, 불면, 요통, 편두통, 소화 불량, 위장 장애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도 꽤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명절을 계기로 평소고 밀어져 있던 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갈등이 표출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게 된다. 최근에는 남편, 미취업자, 미혼자, 시어머니 등도 정신적 또는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명절 증후군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기고



이동범 수필가·전 광주교총 회장

학교 폭력 근절하려면

든 학교 폭력 비율이 6년 만에 증가세로 올라선 것이다. 이번 조사는 급년 5월 온라인을 통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의 93.5%인 399만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초중학생의 학교 폭력 피해가 두드러졌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언어 폭력(34.7%), 집단 따돌림(17.2%), 스토킹(11.8%) 등의 순으로 높았다. SNS를 통한 사이버 괴롭힘(10.8%)이 신체 폭행(10.0%)보다 높아진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날로 증가하는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첫째, 교원들의 사기 진작으로 교권을 확립하는 일이다. 학교 현장을 보면 교권 침해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선생님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교육청이 이달 초 발표한 '광주 교육 중합 실태 조사' 결과 가장 심각한 교권 침해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44.6%이며,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39.1%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현장 교사들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생활 교육의 어려움이 72.4%로 가장 높았다. 이 통계를 볼 때

선생님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으며, 이직(移職)을 고려한 교사가 30%나 되었다고 한다.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이후 학생들의 인권을 우선시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학생의 지도권을 상실하고 있거나 포기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학생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정당한 방법의 꾸지람이나 훈육을 해야 하고 질책을 하여 행실을 바로잡도록 함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교권 확립을 위한 교육 당국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권 강화 없이 학교 폭력 근절은 절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인성 교육과 상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인성 교육은 머리로 깨달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관여하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꿈과 마음과 손발이 함께 움직여주는 인성 교육은 습관화된 실천과 정서를 동반한 체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학생들은 선생님과 격의 없이 상담을 하면서 애로 사항이나 불편 사항을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래포

(Rapport) 형성과 자성(自省)·자각(自覺)·자행(自行)의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일기 쓰기를 생활화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생 상호간의 친교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학생들이 바른말과 고운말로 친구간에 마음 놓고 대화하면서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오락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친교 활동의 기회와 장(場)을 마련하여 실행한다. 넷째, 학부모 교육을 강화한다. 학부모들이 교육을 이해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사례를 인지하도록 수시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내 자녀만큼 남의 자녀도 귀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여 서로 감싸고 일사안아 주는 부모가 되도록 한다.

학교 폭력 근절은 '인권' 이전에 '인간적 사랑'을 추구하는 '인간 중심 상생 교육'이 되도록 교육 정책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장래를 위해서 가정, 학교, 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학교 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이 미래로 희망이기 때문이다.

社說

정치권은 민생 문제 해결 추석 민심 잘 들었나

닷새간의 추석 연휴 동안 광주·전남 지역구를 둘러본 국회의원들은 남북 협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심을 읽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여당 의원들이 남북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청년 취업난과 함께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심에 더 귀를 기울였다 한다.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추석 민심의 주요 이슈는 역시 평양 정상회담이었다"며 "한반도의 평화가 삶 곳곳에 영향을 줄 거란 기대감들이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크게 일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시골이지만 평양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은 여느 곳 못지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도 전남의 현안인 쌀 목표 가격 결정에 대한 걱정, 기상 이상에 따른 피해 보상 확대 요구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바닥 민심도 전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주승용(전남 여수) 의원은 "청

년들은 취업난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 힘든 시기인 만큼 여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그렇게 지역구를 돌며 파악한 추석 민심을 이제 국정에 반영해야 할 책무가 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미뤄졌던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필두로 정기국회 2라운드가 예고돼 있다.

하지만 여당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발판 삼아 남북 관계는 물론 개혁 입법 등에 드라이브를 걸고, 야당은 현 경제 상황의 정정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민심은 여야 간 협치를 바라고 있다. 지역민들은 갈등보다는 협치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먼저 다가가는 포용력을, 야당은 비판은 하되 도와줄 것은 도와주는 협치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것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광주 민간 공항을 오는 2021년까지 무안 국제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지난 2007년 11월 개항한 무안 국제공항은 호남 대표 공항이자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전기(轉機)를 마련했다. 그러나 무안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가로놓여 있다.

우선 여행자들이 공항까지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KTX 노선 문제다. 광주 송정역-나주 고막원역(26.4km) 구간은 운영할 완공되지만 나머지 고막원-무안공항-목포 구간(51.2km)은 아직 설계조차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오는 2025년을 완공 목표로 잡은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 조기 개통이 절실하다. KTX 개통 때까지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광주-무안공항 간 연계 대중교통망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무안공항 기반 시설 확충도 급

선무다. 대형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활주로를 기존 2800m에서 3200m 이상으로 확장해야 한다. 수하물 처리시설 증설과 계류장 확장, 공항 근무자와 승무원들의 생활 공간인 통합 관사 건립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폭적인 국비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문제는 연 지 11년이 된 무안 국제공항은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맞았다. 에어 필립과 티웨이 항공 등 저비용 항공사들의 활발한 노선 확대와 더불어 공항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안공항을 통해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지를 다녀오는 여행자들이 많지만 반대로 중국이나 동남아 관광객을 광주·전남권으로 유입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도 개발해야 한다. 무안공항 활성화 문제는 광주·전남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여러 난제를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자고 나면 오르는 아파트 가격이 눈을 다시 비비는 세상이 됐다. 불법과 탈법을 총동원한 시장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다. 대책은 아직 미진한데, 극소수 부유층 등 일부에서는 '세금 폭탄'이라고 호들갑이 다. 그들 자산의 대부분은 아파트이니,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부를 일궈냈다는 사실을 잊은 모양이다.

과거 부동산 대책은 오로지 공급이었다. 주택 수요가 넘쳐 나고, 서민들은 10년 아니 20년 그 이상을 노력해 어렵사리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

아파트 공화국

던 시대였다. 좁은 땅덩어리에, 높게 건물지어 여럿이 함께 살자는 아파트가 무슨 잘못이라. 사실 2000년대 들어 아파트의 인기가 시들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이후 점차 아파트 실수요가 줄어들었으나, 최근 신규 또는 인기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가 '함께'의 의미를 저버린 것은 오래전 일이다. '분극'(分極)의 아이콘이 됐고, 빈부 격차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도구가 됐다. 일부 아파트의 '가격 급등'은 그것을 통해 이익을 보는 특정 세력이었고, 실수요에 맞춘 공급을 하지

못하며, 불로 소득을 징수하지 못하는 정부의 소극적 정책을 그 배경으로 한다. 공무원들도 아파트 투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과거 토지의 가치는 비옥한 정도에 따라 달라졌다. 같은 면적의 토지에서 농산물의 생산량이 저마다 다르니 당연한 것이다. 비옥도는 자연 및 지리적 여건과 함께 인간의 노동이 가미돼 결정된다. 농경 시대가 저물고 일제 강점기, 도시화·산업화가 급속히 추진되면서 개발이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 개발 가능 여부는 정부·지자체가 결정한다.

따라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지자체의 개발 정책 및 사업에 의해 결정되는 토지의 아파트 가격 상성이 부유층들의 '부의 독점'을 공고히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을 멋대로 높여 파는 것은 실수요자들을 등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토지가 공공재라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불로 소득에 대해 철저히 세금을 징수해 지금까지도 국가 경제의 기둥을 바로잡았으면 한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동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문화사업국	220-0541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업무국	220-055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